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영국, 자동차보험료 15~20% 인상 예상

- 영국의 자동차보험료는 200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5~20%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.
  - EMB 계리법인 등은 2010년 1월 현재 자동차보험료의 평균은 564.19파운드로서 전년동기대비 20% 인상된 상황이며, 2011년 1월에는 다시 15~20%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함.
  - 연령별 보험료 인상폭은 17~24세 운전자의 경우가 25%로 가장 클 것이며 평균 보험료는 1,489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    -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장 적은 15%로 인상되며(평균보험료 423 파운드), 55~64세 운전자는 16% 인상되나 평균보험료는 376 파운드로서 연령별 그룹에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됨.
  - 성별로는 남성운전자의 평균보험료는 20.1% 인상되며, 여성운전자는 19.1%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.
  
- 한편, 소송증가에 기인한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가격인하 경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파악되나,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손해율을 상승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  - ‘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변호비용을 받지 않겠다’는 TV광고가 2009년도부터 방송되기 시작하자 대인배상책임 관련 지급보험금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급 보험금액 자체도 커지게 됨.
  - 그러나 이러한 지급보험금의 증가 추세는 2009년 자동차보험료 비교 웹사이트 도입이 가져온 보험료인하 경쟁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함.
  - 한편, 대물배상금 청구는 실손보상만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불황기에는 경미한 사고 등은 무시되거나 운전자가 직접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.
    - 영국 최대 자동차사고 수리업체인 Nationwide Accident Repair Services는 2009년 수리청구 규모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함.

(Financial Times, 1/11, 1/22, Mail online 1/25)